

영남 『소학』의 기풍*

— 유휘문의 『소학후편』 연구

박 순 남**

차 례

- | | |
|------------------|-----------------|
| 1. 서론 | 4. 영남 소학서로서의 위상 |
| 2. 저술 동기 및 배경 | 5. 결론 |
| 3. 편제 체계 및 내용 체계 | |

국문초록

호고와 유휘문(1773~1832)은 퇴계학의 본고장인 안동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던 유학자로 유장원, 남한조, 정종로의 문하에서 학문을 전수 받고 유치명, 남한호, 조승수 등에게 강학을 통해 배움을 전수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경학과 예학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생동안 후진을 양성하면서 29권 15책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특히 그의 『소학』에 대한 관심은 남달라 조선후기 소학학의 연구 성과를 모두 집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소학장구』, 『소학동자문』, 『소학후편』 등 세 편의 저술을 남겼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3001)

** 경성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소학후편』은 그의 나이 29세(1801)에 완성된 책으로, 책명 그대로 『소학』의 후속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소학』의 외편인 가언과 선행 두편의 체제로 편성되었다. 그 체제의 편성에 있어 『소학후편』은 주자가 『소학』을 만든 의도와 체제를 착실히 계승하여 만들어진 소학서류로 『소학』에 분속된 조목에 견주어 가언 편은 광입교, 광명륜, 광경신으로 나누고, 선행 편은 실입교, 실명륜, 실경신으로 나누어 이 아래 모두 153조목을 두었다.

『소학후편』의 체제 구성은 편성된 장 아래 분속된 조목이 상호 간에 의미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미 경계를 세워 조목을 일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두었다. 그 조목의 경계 및 소속은 『소학』의 전체 내용과 의미접속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유취문이 『소학』의 전체 의미를 분장 분절로 정립한 분절개념과 일치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소학후편』의 본문 구성을 『소학』과 일맥관통할 수 있도록 전체 장절을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본문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주자의 어록을 본지로 삼고 이를 구체화시킨 당·송 이후의 중국 인물과 고려시대 이후 동국의 인물 순으로 차례로 배치하고 조목의 미덕에 적합한 사례를 채록하여 두었다. 특히 영남 퇴계학파의 학문을 주도하였던 안동 지역 학자들의格言과 至行을 위주로 한 채록은 이들의 사례에 일정한 권위를 부여하여 『소학』 언행의 표준을 삼고자 한 의도가 내재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소학』의 편찬 체계를 계승하면서도 특정학파의 언행 표준서로 성격을 가진 새로운 소학서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소학사에서 『소학후편』의 의의는 영남 퇴계학파의 『소학』 입문 교재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한편 이 책은 안정복과 남한조의 서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부자장과 독서장에 중요하게 인용하였다. 이는 당시 영남의 반서학적인 논조를 채록한 최초의 소학서류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 책으로 영남 『소학』의 기풍을 진작하려는 유취문의 『소학』 존중의 학문적 소신이 집적

된 결과로 특정할 수 있다.

주제어 : 유휘문, 소학장구, 소학동자문, 소학후편, 영남 소학입문서, 영남 소학의 기풍, 영남의 가언·선행서

1. 서론

조선의 『소학』은 퇴계가 『성학십도』 속에 『소학도』를 포함시키고, 율곡이 중국학자들의 소학주석서를 참고하여 『소학집주』를 만들면서, 『소학』은 성학의 학문체계에서 『대학』과 함께 그 학문적 위상이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소학』의 구성 체계 및 내용 체계 그리고 본문의 자구 및 주석 등 『소학』을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가진 중요한 교재로 인식하여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 방식을 준용한 『소학』 논의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학』의 구성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불완전성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 문제는 『소학』이 아동의 교재이지만, 조선의 풍속과 학풍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학문 풍토에서 주자가 만든 『소학』의 구성체계를 바꾸거나 내용을 달리 설정하는 문제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소학서류가 간행되는 당위성을 제공하였다.¹⁾ 18세기 이후 유언집의 『대동소학』을 비롯하여 안정복의 『하학지남』, 이덕무의 『사소절』, 황덕길의 『동헌학칙』, 유휘문의 『소학후편』, 박재형의 『해동소학』 등 학파와 학맥을 달리하여 생산된 이들 소학서류의 간행은 이러한 논의가 반영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동소학』, 『하학지남』, 『동헌학칙』, 『해동소학』, 『사소절』에 대

1)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집, 한국문학회, 2021, 97~98쪽.

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²⁾ 특히 성호학과에서 생산된 소학서의 특징적인 면모를 연구한 논의들은 각 학파의 소학서류에 대한 일정한 경향을 규정지을 수 있는 단초를 살펴볼 수 있다.³⁾

19세기 학자 유희문이 저술한 『소학후편』은 아직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다. 이 책은 연보에 따르면 그의 나이 29세(1801)에 저술한 것이다. 그 체제는 『소학』의 가언, 선행 편의 내용과 형식을 준용하여 외편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중국의 제현과 한국 학술사에서 뛰어난 인물 중 특별히 효행이 뛰어나고 행실이 방정한 이들을 선정하여 각 편과 장 아래 일정한 방식으로 체례를 갖추어 편성하였다. 특히 동국의 제현은 안동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던 학자들이 대거 포진되어있다. 이는 이 책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성체계이다.

18세기 이후 소학사에서 퇴계학과 내의 『소학』 관련 연구 성과물은 드물다. 이에 퇴계의 본고장에서 생산된 『소학후편』에 대한 연구는 조선 후기 소학서류의 연구 성과 안에서 영남 『소학』의 기풍을 규정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성과물로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적으로 이 책의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개괄하여 19세기 새로운 소학서류로서의 그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소학사에서 『소학후편』의 위상과 그 의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소학후편』이 조선후기 소학학의 성과가 반영된 소학

2) 소학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조성애, 『순암 안정복의 하학론 -『하학지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권, 한국교육사학회, 2010; 이정민, 『18세기 『소학』류 서적의 새로운 양상-『大東小學』과 『東賢學則』에 대한 검토』, 『한국문화』 71권,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황봉덕, 『李德懋 『士小節』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3) 성호학과에서 간행된 『소학』 관련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박순남, 위의 논문, 2021; 『『소학』의 한국적 변용- 성호학과 소학서류에 내재된 인물 사건에 대한 의리 규명』, 『퇴계학논총』 37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21.)

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퇴계학과에서 생산된 『소학』 이해에 대한 경향성이 학파와 학맥을 달리하는 여타의 소학서류와 변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저술 동기 및 배경

유휘문은 조선 소학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소학』을 『대학』, 『중용』과 같이 분장 분절의 체계를 세우고, 주석을 모두 정비하여 완결된 형태로 『소학장구』를 만들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소학』 논의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소학』을 분절로 이해한 논의를 새롭게 정립하여 분절의 체계를 세우고, 그 주석에 있어서는 『소학집주』의 체계와 구별되는 주석방식을 강구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 소학사에서 『소학집주』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소학』 주석본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한다.⁴⁾ 그리고 『소학장구』의 체제 및 주석에 관한 논변을 자문자답한 『소학동자문』은 『소학장구』의 주석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소학후편』은 이 책들 보다 앞서 저술된 것으로 『소학』의 후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치호가 유휘문의 『家狀』에 그가 편찬한 여러 책을 서술하면서 이 세 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해 “제가의 주해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소학장구』를 지었고, 또 『동자문』을 지어서는 그 뜻을 드러내었다. 또 주자 이후와 우리 유현의 가언·선행을 채록하여 후세에 법으로 삼을 만한 것으로 만든 것이 『소학후편』이다.”⁵⁾고 논평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4) 『소학장구』의 분절체제와 주석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박순남, 「好古窩 柳徽文의 『小學章句』 분석- 篇章의 分章 分節 體系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4집, 동양한문학회, 2012; 「『소학장구』의 주석 방식에 관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40집, 동양한문학회, 2015.)

5) 유휘문, 『好古窩文集附錄』 권2, 「家狀[柳致稿]」. “諸家註解有未備者, 著小學章句,

이 세 책은 『소학후편(1801)』, 『소학장구(1830)』, 『소학동자문(1830)』 순으로 저술되었는데, 성격상 가장 후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소학후편(이하 후편)』이 가장 먼저 편찬되었다. 이러한 이유를 유취문이 다음과 같이 밝혀두었다.

주자가 삼대의 가언과 선행을 모아 『소학』 내편을 만들었고, 漢나라 이후 것으로는 외편을 만들었으니, 주자의 언행과 근세의 사적이 후세에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이 매우 많은데도 수집하는 사람이 없다. 정정간(鄭貞簡)선생⁶⁾이 일찍이 ‘주자가 이미 여러 선생의 격언을 모아서 외편을 만들었으나, 이를 이어서 편입한 것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고 말하였다.⁷⁾ 이제 분수도 모르고 주자의 여러 책과 근대 유현들의 언행을 모아서 『소학후편』이라 이름 하였다.”⁸⁾

이는 유취문이 자신이 저술한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관규참언>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주자가 『소학』을 만든 이래 근 6, 7백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채록된 내용이 시대적 근접성에 있어서 뒤떨어진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선례로 삼기에 어려운 점을 고심한 것이다. 따라서 『소학』 본문에 채록되지 못한 주자의 언행을 새로이 넣고, 시대에 가까운 인물들의 사적으로 건문을 삼을 수 있도록 『소학』의 외편을 보강 확충하여, 시대나 형편에 맞는 『소학』

又作童子問，以發其義。又采朱子以後及我東儒賢嘉言善行可爲後世法者，爲小學後篇。”

- 6) 貞簡은 鄭琢(1526~1605)의 시호로 자는 子精, 호는 藥圃이다. 이황의 문인이다.
- 7) 정탁은 주자의 뜻을 이어 『소학』의 취지와 관련된 것들을 채록하여 입교, 명륜, 경신의 뜻을 넓혀서 『小學衍義』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鄭琢, 『藥圃集』, <藥圃先生年譜>. “乃抄輯朱子書有關於小學者，以廣立教，明倫，敬身之意，爲小學衍義，未及成完書.”)
- 8) 柳徽文, 『好古窩文集』 권13, 『雜著』 <管窺僭言>. “朱子袁輯三代嘉言善行，爲小學內篇，漢以後者爲外篇，而朱子言行及近世事蹟，可爲後世法者甚多，而無人搜集。鄭貞簡先生，嘗言朱子既袁集諸先生格言，以爲外篇。恨未有繼此而編入者，今不揆僭妄，採摭朱子諸書及近代儒賢言行，名曰小學後篇.”

의 법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유휘문은 정탁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취지를 되살려 『소학』이후의 여러 인물들의 사적을 수집한 『소학』 후속서의 간행을 시급한 과제로 여긴 것이다.

이러한 그의 『소학』에 대한 인식은 18세기 이후 『소학』의 학문 체계에 대한 대체가 밝혀지면서 주자의 『소학』을 조선의 독자적인 『소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식 아래 조선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소학』을 재편성한 소학서류가 간행된 것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⁹⁾ 이는 익숙한 시대와 인물로 배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따라서 유휘문 역시 『후편』을 만든 배경 및 동기에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주자 이래의 아름다운 언행을 모아서 후편을 만들어 평상시에 살펴 반성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또한 그 시대 형편에 더욱 가까운 것을 취하여 사람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니, 또한 살펴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¹⁰⁾

이렇듯 유휘문이 ‘時世之尤近’, ‘人之尤易’로 그 편집 방향을 잡은 것은 주자 이후의 인물의 사적을 보강하면서 학문과 덕성을 갖춘 우리나라의 현인들을 통해 그 덕성과 미덕을 가까이에서 좀 더 친숙하게 배우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편제 체계 및 내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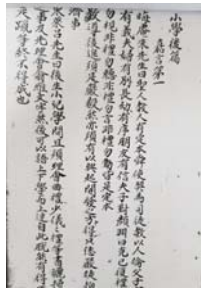
필자가 소장한 『후편』은 2권 1책의 필사본으로 序와 跋이 없으며,¹¹⁾

9) 박순남, 「조선후기 『소학』 해석의 시대적 추이에 따른 특징」, 『동양한문학연구』 제62집, 동양한문학회, 2022, 124쪽.

10) 유휘문 지음·박순남 옮김, 『역주소학장구』, 민속원, 2021, 378~379쪽.



<표지>



<본문>

『소학』 외편의 체계를 준용하여 가언, 선행 편만으로 편성되어 있다.

본문 嘉言第一 아래 廣立教, 廣明倫, 廣敬身을 두고, 善行第二 아래 實立教, 實明倫, 實敬身으로 나누어 체례를 삼았다. 그리고 그 취지에 적합한 조목을 그 아래 분속하여 두었다. 본문에 채록된 인물에 대한

지칭은 諡號, 號, 字, 또는 관직명으로 되어있다. 출처가 책명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李文成公珥擊蒙要訣’과 같이 밝혀두고, 다시 언급되는 경우에는 책명만 표시하였다. 이 외에 언행의 출처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없다. 大·小文의 구분이 없으며, 한 조목 아래에 여러 항목이 부기될 경우에는 ○으로 표점하여 두었다. 조목의 구성은 대체로 주자, 중국, 그리고 동국 차례로 그 순서를 배열하였다.

이 책에는 편 아래 장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채록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경계 아래 조목이 분속되어있다. 본문의 내용에 따라 편장의 체제와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편제 구성상의 특징

『후편』의 전체적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의미의 접합에 따라 분류하면 가언 편 광입교는 6조목(11항목¹²⁾)이다. 그리고 광명륜은 모두 31조

11) 국학자료 목록집에 『소학후편(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은 2권 1책의 필사본으로 소개되어 있다. 소장본에는 첫 서두에 “鄭貞簡公曰 學者用力之地, 專在小學一書, 朱子既哀集諸先生格言, 以爲外篇. 恨未有繼此而編入者, 宗晦輯法近代述後篇 以自警省.”이 채록되어있다. 필자가 소장된 것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異本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로 살펴볼 문제이다.

12) 본문의 조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정하고, 두 개 이상 부기된 항목의 수와 같이 셈하였다.

목(79항목)이다. 이는 부자지친 7조목(31항목), 군신지의 6조목(15항목), 부부지별 7조목(13항목), 장유지서 5조목(13항목), 봉우지신 4조목(4항목), 통론 2조목(3항목)으로 나누어진다. 광경신은 심술지요 19조목(30항목), 위의지척 10조목(30항목), 의복지제 1조목(6항목), 음식지절 6조목(11항목), 통론(독서장) 15조목(25항목)으로 모두 51조목(102항목)으로 편성되어있다. 이에 가언 편에 분속된 조목은 모두 88조목(192항목)이다.

선행 편은 실입교가 10조목(35항목)이다. 실명륜은 모두 30조목(43항목)이다. 이는 부자지친 9조목(12항목), 군신지의 8조목(13항목), 부부지별 3조목(3항목), 장유지서 2조목(2항목), 봉우지신 4조목(4항목), 통론 5조목(8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실경신은 심술지요 11조목(13항목), 위의지척 9조목(17항목), 의복지제 4조목(4항목), 음식지절 1조목(2항목)으로 모두 25조목(36항목)으로 편성되어있다. 이에 선행 편에 분속된 조목은 모두 65조목(114항목)이다.

이를 토대로 종합하여 보면, 『후편』은 모두 153조목(306항목)으로 체례를 갖추어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광명륜 이하 실경신 아래 분속된 9장의 분속은 장의 취지에 따라 필자가 별도로 나누어 둔 것으로 책에는 별도의 구분은 없다. 이는 주자가 『소학』 전체 386조목을 6편 19장으로 편성하여 만들면서 계고 편 이하 외편을 입교, 명륜, 경신으로 나누고 내편과 같이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 심술, 위의, 의복, 음식 등 9장은 별도로 두지 않은 체계와 같다.

『후편』의 편장 구성에 있어 눈여겨 볼만한 것은 가언, 선행 편의 봉우 장이다. 이 장은 『소학』의 본문 구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그 비중에 다소 문제가 제기되었던 장으로, 가언 편은 3조목, 선행 편은 불과 1조목만이 편성되어 있다. 선행 편 봉우 장은 이마저도 『소학』을 만들 당시에는 없었다는 주자의 말이 있었던 관계로,¹³⁾ 장유 장으로의 이속이 제안되

13) 朴世采, 『南溪外集』 권9, <答申伯武問小學>. “有問實明倫篇何以無朋友一條, 朱子曰當時是衆編來, 偶無此耳. 然李氏則以此條爲明朋友之交, 殊有可據, 蓋或此條

기도 하였다.¹⁴⁾

유취문은 봉우 장의 편제와 관련하여 ‘대개 봉우는 信을 위주로 하니, 이것만으로도 五敎 가운데 信을 실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문답에 모두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니, 여기 한 장은 혹 추후에 보충해서 넣은 것일까?’¹⁵⁾하고 의문을 두었다. 그럼에도 『후편』에 가언, 선행 편 봉우 장 아래 각기 4조목씩 8조목을 편성하여 둔 것은 편목 구성을 일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제시된 것이다. 이런 점은 『하학지남』에 <師友章>이 별도로 편성되고, 『동현학칙』에 朋友章 조목의 증가를 『소학』의 편목 구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조치이다.¹⁶⁾

『후편』의 체제 구성을 『소학』 외편의 체제와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학』 외편과 『소학후편』의 체제>

『소학』 외편				『소학후편』			
	편	조목수	비중		편	조목수	비중
嘉言(91)	廣立敎	14	15.38%	嘉言(88)	廣立敎	6	6.81%
	廣明倫	41	45.04%		廣明倫	31	35.22%
	廣敬身	36	39.56%		廣敬身	51	57.95%
善行(81)	實立敎	8	9.87%	善行(65)	實立敎	10	15.38%
	實明倫	45	55.55%		實明倫	30	46.15%
	實敬身	28	34.56%		實敬身	25	38.46%

爲追補, 未可知也.”

14) 박순남, 「신후담의 소학차의」, 『한국문학논총』 78집, 한국문학회, 2018, 111~113쪽.

15) 유취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606쪽.

16) 박순남, 「성호학과 소학서류에 내재된 인물 사건에 대한 의리 규명」, 2021, 105쪽.

『소학』의 가언, 선행 편이 모두 172조목이니, 153조목은 89%의 증가율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후편』의 저술로 인해 외편은 325조목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그 비중에 있어서는 눈에 드러나는 점은 실업교의 비중이 커졌으며, 광경신 또한 광명륜 보다 많은 증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실업교 편의 증가는 주자의 『백록동규』를 채록하면서 퇴계의 『이산학규』를 비롯하여 이상정 등 영남 학자들이 만든 규약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생긴 소치로 보인다. 이는 뒤 장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유취문은 내편 경신 편의 첫 머리에 『예기』 「애공문」 편의 말을 인용한 공자의 말에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부모와 자신에 견주어 경신이 효친의 도리가 됨을 위주로 말하였으니, 위 편 명륜의 뜻을 계승한 것이다.”고 주석하여 두었다.¹⁷⁾ 이는 경신 편의 요체를 개인의 수신 보다 관계에 있어 자신의 검속을 우선시 한 말이다. 이 검속의 요체는 ‘敬’이다.

① 남명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 제일 철문관은 곧 화류관(花柳關)이다.”¹⁸⁾ (심술지요)

② 이 문성공께서 말씀하셨다. “밤에 자거나 병이 아니면 눕거나 비스듬하게 기대어서는 안 된다. 낮에 자고 싶은 생각이 들면 마땅히 이 마음을 불러 깨워 십분 반성하여 눈꺼풀이 무겁거든 일어나서 두루 걸으면서 깨도록 해야 한다.”¹⁹⁾ (위의지칙)

③ 구사당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남에게 술과 음식을 요구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는 혹 남에게 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유독 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자체가 옛사람들의 풍류라지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음식을 빌어먹는 일과 다를 것이 없는 부끄러운 것이다. 또 지금의 담배[南草] 같은 것은 서로 요구하기를 더욱 꺼리지 않고, 혹 천한 종에게 빌리는데 이르니, 이는 모두 심술에 큰 허물이 된다. 마땅히 통렬하게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²⁰⁾ (음식

17) 유취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252쪽.

18) 柳徽文, 『小學後篇』. “南冥先生曰 天下第一鐵門關, 是花柳關也.”

19) 柳徽文, 『小學後篇』. “李文成公曰 非夜眠及疾病, 不可偃臥跛軟. 晝有睡思, 當喚醒此心, 十分猛省, 眼皮重, 起而周步使之惺惺.”

지절)

이는 가언 편 광경신에 채록된 조식, 이이, 김낙행의 격언이다. 기생들의 유혹, 일상에서 놓고 싶은 욕구, 술과 담배에 대한 무절제한은 일상에서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종류의 것들이다. 조선 학자들에게 있어 『소학』의 경신은 自警을 위한 실천 덕목으로 중시되었던 만큼 그에 대한 경계의 말이 적지 않았다. 유취문은 “敬 한 글자는 성학의 처음이자 끝이다.”²¹⁾라고 한 주자의 말을 광경신의 첫머리로 삼았다. 퇴계는 주자의 이 말을 근거로 하여 『성학십도』 속에 『소학도』와 『대학도』를 관통하는 공부의 요체로 ‘敬’을 들었다. 따라서 퇴계를 계승한 이들 학파에서 『소학』은 경을 성취할 수 있는 실천의 지침서로서 대단히 중시되었다.²²⁾ 그러나 이러한 기저는 비단 영남학파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후편』과 같이 가언, 선행 편으로 소학서를 구성한 황덕길의 『동헌학칙』의 경우에도 명륜 편은 258조목(가언74, 선행184)인데 반해, 경신 편은 412조목(가언196, 선행216)으로 경신 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복의 『하학지남』 역시 <심술지요>를 별도의 장으로 두고 그 아래 조목을 세분화하여 두었다. 이러한 점은 유가의 예법에 따른 자신의 처신에 대한 검속을 대단히 중시 여겼고, 또 이를 중요한 본분으로 삼은 조선후기 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채록의 기저로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 柳徽文, 『小學後篇』. “九思堂先生曰 ○毋徵酒食於人, 今人於噉食之物, 或恥求於人, 而獨於酒不以爲. 此自古人風流, 若凡人爲之, 則其爲恥與乞食無異. 且如今之南草, 尤不嫌其相索, 至或丐諸賤隸, 此皆大累心術者也. 宜痛戒之.”

21) 柳徽文, 『小學後篇』. “晦庵先生曰 敬之一字, 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

22) 이상호는 영남학파에서 『소학』이 중시되었던 특징을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敬을 성취할 수 있는 경전으로서 『소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치로 설명하였다.(이상호, 『영남학파의 『소학』 중시가 가진 철학적 특징과 교육적 함의』, 『국학연구』 제1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1, 64쪽.)

2) 내용 체계상의 특징

『후편』은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학』의 후편이다. 이는 『후편』에 채록된 내용 가운데 『소학』에서 채록된 것은 『소학총론』의 여조건의 말이 유일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학』의 후속편으로서 『후편』의 내용에 대한 점검은 일차적으로 『소학』과의 점검에 있다. 우선 『후편』의 가언 편 광입교에 채록된 조목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회암 주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는 定本이 있다. 舜이 契로 하여금 사도로 삼아 인륜인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을 가르치게 하였다. 부자가 안연을 대하여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모두 이는 定本이다. 후진을 가르치고 인도함에 항상 엄하고 굳세어야 하나, 또한 항상 흥기시켜 일깨워 바야흐로 터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엄하게 할 것만 생각하여 한갓 그들을 구속한다면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²³⁾

② 동래 여선생이 말씀하셨다. “후생 어린 아이들의 배움은 모름지기 『곡례』, 『소의』, 『의례』 등을 이해하고 청소·응대·진퇴 등의 행동을 배우고, 『이아』 등 문자를 먼저 이해한 연후에 그 위의 학문을 말해주어서 쉬운 것을 배워, 높은 경지의 어려운 공부에 도달한다면 이로부터 초연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등급을 뛰어넘는 것이니 끝내 성공할 수 없다.”²⁴⁾

③ 회암 선생이 큰 아들 숙이 동래 선생에게 배울 때 그 아들에게 주는 글에 말씀하셨다.²⁵⁾

23) 柳徽文, 『小學後篇』. “晦庵朱先生曰, 聖人教人 有定本. 舜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夫子對顏淵曰, 克己復禮爲仁,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皆是定本. 教導後進, 須是嚴毅. 然亦須有以興起開發之方得, 只恁嚴徒拘束之, 亦不濟事.”

24) 柳徽文, 『小學後篇』. “東萊呂先生曰, 後生小兒學問, 且須理會曲禮少儀儀禮等, 書(원문은 學이다. 오기인 듯하다)灑掃應對進退之事, 及先理會爾. 雅文字然後, 可以語上, 下學而上達, 自此脫然有得. 不如此, 則是躐等, 終不得成.”

- ④ 문정공 이색이 시를 지어 자손에게 보이며 말씀하셨다.²⁶⁾
- ⑤ 서애 유선생이 자식에게 주는 글에 말씀하셨다.²⁷⁾
- ⑥ 문정공 허목이 자손에게 경계하는 글에 말씀하셨다.²⁸⁾

『후편』 가언 편 광입교에는 모두 6조목이 편입되어있다. 먼저 채록된 순서를 보면 주희→여조검→주희→이색→유성룡→허목 순이다. 구성적 짜임에 있어서 중국, 동현, 시대순의 차례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체계로 주자의 말을 선두로 삼고, 중국, 동현의 말로 이를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 1조의 조목은 『주자어류』에서 채록된 것으로 『소학』의 가르침이 곧 명륜과 경신의 일임을 들었다. 제 2조는 『소학』과 유일하게 일치하는 조목으로 『소학』의 교육 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여조검의 『소학』에 대한 총론이다. 제 3조 이하의 조목은 주자의 <戒子書>에 이어 동현들이 자손들에게 훈계한 글을 차례대로 채록하여 둔 것이다.

유휘문은 『소학』의 학문 규모에 대하여 ‘입교는 인륜과 예악을 총괄한 것이니 강령이 되며, 명륜, 경신은 입교에서 가르쳐야 할 조목이 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²⁹⁾ 『후편』 광입교 제 1~2조는 그의 생각이 그대로 적시된 인용으로 입교 편 전체를 총괄하는 말이다. 제 3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모두 <계자서>이다. 이는 『소학』 광입교 제 6조 이하로부터 제 14조까지는 모두 <계자서>를 내용으로 한 것과 동일한 구성체계이다. 이러한 점은 『소학』 외편의 내용 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후편』을 구성하면서 내편 입교 편의 요체를 염두에 두고, 광입교에서도 이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목을 채록하고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편 부자지친 장의 조목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25) 柳徽文, 『小學後篇』. “晦庵先生 以長子塾 從學東萊先生 與之書曰…”

26) 柳徽文, 『小學後篇』. “李文靖公稿, 作詩詩子孫曰…”

27) 柳徽文, 『小學後篇』. “西厓柳先生, 與子書曰…”

28) 柳徽文, 『小學後篇』. “許文正公穆, 戒子孫書曰…”

29) 유휘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114쪽.

① 송나라 孝宗은 高宗을 잘 섬기었는데, 고종의 궁 안에 죽통을 설치하고, 벽을 뚫어 그의 침소와 통하게 하고서 內豎로 하여금 매일 밤 일정마다 죽통 안에 금탄자를 넣게 하여 또르르 지나가며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고종이 편한지를 알았고, 만약 일정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편안치 못한 것을 알아서 즉시 돌아가 문후하였다.³⁰⁾

② 야은 길선생은 혼정신성에 이불을 펴고 베개를 거두는 것을 몸소 행하였다. 처가 그것을 대신하고자 하니 공이 “어머니께서 늙으셨으니, 후일 비록 어머니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어서입니다.”고 하였다.³¹⁾

③ 일두 정선생. ○선생이 젊었을 때 술을 좋아하여 하루는 벗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서 광야에 쓰러져 밤을 새우고 돌아왔다. 어머니가 그를 꾸짖으니 선생은 깊이 자책하여 힘쓰고, 임금께서 하사하신 것이거나 음복 이외에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다.³²⁾

④ 영웅 이지남³³⁾은 字가 단례이다. 어머니를 모셔놓고, 여러 자식들과 함께 앞에서 강론하여 대부인이 그것을 듣고서 그 근심을 잊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썼다.³⁴⁾

⑤ 문열공 조현은 학문을 즐겨 항상 존음을 아꼈다. 집안이 가난하여 몸소 농사를 짓고 때로는 밭 사이에서 소를 먹이면서 역시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 날마다 땀나뭇을 해 와서 아버지의 방에 군불을 때며 그에 비추어 책을 읽었다.³⁵⁾

⑥ 고려 좌사의 문익점은 어머니의 상을 지키기 위해 산간에 남아 있

30) 柳徽文, 『小學後篇』. “宋 孝宗, 善事高宗, 置竹筒於高宗宮內, 穿壁以通于其所寢處, 使內豎每夜便逐一更, 放金彈子于竹筒內 溜過打響, 則知高宗之安. 若不響一更, 則知其不安, 卽歸問候.”

31) 柳徽文, 『小學後篇』. “吉治隱先生, 晨昏定省, 披衾斂枕, 躬自爲之, 妻孥欲代之. 公曰 母老矣. 後日雖欲爲母爲此, 不可得也.”

32) 柳徽文, 『小學後篇』. “一臺鄭先生. ○先生少時嗜酒, 一日與友人痛飲, 醉倒曠野. 經宿而返, 母夫人責, 先生深自刻厲, 君賜飲福外, 更不接口.”

33) 본문은 李永膺至로 되어 있으나, 그의 호와 자로 보았을 때 李至男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34) 柳徽文, 『小學後篇』. “李永膺至[男] 字端禮. 事母與諸子講論於前, 大夫人聽之, 輒爲之忘憂.”

35) 柳徽文, 『小學後篇』. “趙文烈公憲, 嗜學常惜寸陰, 家貧躬自耕, 或牧牛田間, 亦未嘗釋卷. 日採薪爇親埃, 映而讀之.”

었는데 왜구들이 쳐들어와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전멸되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숨었으나, 공은 홀로 최질을 입고 상식을 올리면서 묘소 앞에 엎드려 목놓아 슬피 울며 죽기를 맹세하고 떠나지 않으니, 적군 또한 감탄하여 효성을 칭송하며 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几筵이 참화를 면할 수 있었다. 國朝에 이르러 江城君으로 추봉되었다.³⁶⁾

⑦ 회암선생께서 어머니의 기일에 참흑포삼(縹[黦]黑布衫)을 착용하고 그 두건 역시 그렇게 하였다. 사람들이 “오늘의 복색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대는 ‘군자는 종신토록 복을 입어야 할 상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가.”하고 답하셨다.³⁷⁾

⑧ 정암선생의 가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날마다 반드시 한 번은 가셨다. 비록 공무가 바쁘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춥거나 더워도 그만 두지 않으셨다.³⁸⁾

⑨ 대산선생은 제사 음식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의복과 관을 착용하고서 그것을 받으셨다.³⁹⁾

선행 편 부가지친 장은 모두 9조목을 보장하였다. 제시된 인용문은 송효종→길재→정여창→이지남→조현→문익점→주희→조광조→이상정의 순으로 기재되어있다. 이 9조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1조에서 5조까지는 부모를 섬기는 방법, 제 6조는 거상하는 예, 그리고 제 7조 이하부터는 제사 지내는 예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적과 시대에 따른 인물의 순서가 일정한 경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따라 의미적 경계를 세워 명칭하면 ‘事親’, ‘居喪’, ‘祭祀’ 3절로 나눌 수 있다. 유취문은 『소학』 선행 편 부가지친 장에 분속된 조목을 ‘明事親之道’,

36) 柳徽文, 『小學後篇』. “高麗左司議文益漸 持母服在山間, 值倭寇衝斥, 所過殘滅. 人民逃竄, 公獨衰經饋奠, 伏前號哭, 誓死不去. 賊亦感嘆稱孝而不加害. 由是, 几筵得免於慘禍. 至 國朝追封江城君.”

37) 柳徽文, 『小學後篇』. “晦庵先生, 母夫人忌, 着縹(黦)黑布衫, 其中亦然. 人間今日服色何謂. 曰公豈不聞君子有終身之喪.”

38) 柳徽文, 『小學後篇』. “靜庵先生, 家廟在別所, 日必一往. 雖公務鞅掌, 風雪寒暑, 不廢.”

39) 柳徽文, 『小學後篇』. “大山先生, 有致餽者, 必衣服冠而受之.”

‘言侍親之疾’, ‘明居喪盡禮’로 나눈 바 있고, 가언 편에 ‘事親奉祭’의 말은 있으나 ‘事生事亡之禮’에 편입시켰다. 이는 조목 상호 간에 ‘제사’로 뚜렷하게 경계 지을만한 조목이 없어서이다. 내편(계고 편 포함) 부자지친 장이 ‘事親’, ‘喪親’, ‘祭祀’ 등의 조목으로 경계된 것에 비하면 두리뭉술한 점이 있게 된 것이다. 유희문이 『후편』 가언 부자지친 장에 기일에 대한 주자의 말을 두고,⁴⁰⁾ 선행 편에서 이를 실증할 수 있도록 3조목을 편성한 것은 이 책이 내편의 본문의 취지와 일맥관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의미가 접속되도록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학장구』는 『후편』을 만든 지 근 30년 뒤에 만들어진 책이다. 그러므로 그가 세운 분절 체제로 이 책의 구성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그 시 기상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후편』과 『소학장구』가 모두 『소학』 전편의 내용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만들어진 책임은 분명하다. 『후편』은 내편과 일관된 체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장절의 취지에 따른 조목을 점검하고 조절하여 편성된 책이며, 『소학장구』는 각 조목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명칭화하여 『소학』의 전체 내용을 일목하게 간결히 다듬어 놓은 책이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이 선후의 관계는 있지만 『소학』 이해에 대한 그의 일정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점검해도 무리는 없을 듯 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후편』은 조선후기에 생산된 소학서류 가운데 주자가 만든 『소학』의 체제를 가장 잘 준용하여 만든 소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주자의 『소학』을 보충할 목적으로 만들면서 이 책은 동현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채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선의 새로운 소학서류로 확장시키고자 한 의도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물을 채록한 준거에서 살펴볼 수 있다.

40) 柳徽文, 『小學後篇』. “晦庵先生曰 古無忌祭, 近日諸先生方考及此”

4. 영남 소학서로서의 위상

『후편』은 주자의 여러 책과 중국, 동국의 제현들의 모범적인 언행을 발취하여 만든 책이라는 점에서 18세기에 만들어진 『하학지남』의 내용 구성 체계와 흡사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채록된 인물의 구성 및 분포, 그리고 해당 조목의 본지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도록 인용되었을 사건에 대한 분석은 이 책의 특징이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1) 영남 인물의 중시

『후편』은 인물의 사적을 중심으로 채록되었지만, 『주자어류』를 비롯하여 『격몽요결』 등 여러 책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제시된 서적이나 채록된 인물과 관련하여 인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서적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서: 『家禮』, 『艮齋集』, 『葛庵集』, 『居鄉雜儀』, 『擊蒙要訣』, 『敬堂集』, 『敬菴集』, 『敬軒集』, 『高麗史』, 『南冥集』, 『大東野乘』, 『大山集』, 『東臯遺稿』, 『東萊集』, 『童蒙須知』, 『童子習』, 『牧隱集』, 『明史』, 『眉叟集』, 『白鹿洞規』, 『白沙集』, 『四留銘』, 『西山集』, 『西厓集』, 『宋史』, 『順菴集』, 『新唐書』, 『心經附註』, 『治隱集』, 『呂氏鄉約』, 『呂與叔集』, 『五倫行實圖』, 『愚潭集』, 『愚伏集』, 『元史』, 『月汀集』, 『月川集』, 『二倫行實圖』, 『李延平集』, 『一蠹集』, 『靜菴集』, 『主一箴』, 『朱子語類』, 『重峯集』, 『霽山集』, 『滄溪集』, 『聽松集』, 『退溪文集』, 『匏庵家藏集』, 『筆苑雜記』, 『鶴峯集』, 『寒岡集』, 『海東野言』, 『海左集』, 『皇明啓運錄』, 『晦庵集』 등 56여 종이 인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후편』에 채록된 인물을 중국과 우리나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우리나라		
시대	인물	시대	인물	지역 및 특성
唐 (1)	장열(張說, 667~730)	高麗 (4)	김주(金澍: ? ~?)	서산, 충절
			이색(李穡, 1328~1396)	서천, 이제현의 문인
			문익점(文益漸, 1329~1398)	산청, 효행
			유관(柳寬, 1346~1433)★	문화(안동 이주), 청빈
宋 (24)	왕단(王旦, 957~1017)	朝鮮 (41)	길재(吉再, 1353~1419)	해평, 유학의 계보
	호헌(胡憲, 1084~1162)		황희(黃喜, 1363~1452)	개성, 청백리
	이동(李侗, 1093~1163)		허조(許稠, 1369~1439)	하양, 권근의 문인. 청백리
	효종(孝宗, 1127~1194)		정갑손(鄭甲孫, 1396~1451)	동래, 청백리
	석돈(石琬, 1128~1182)		안평대군(安平大君[李瑬], 1418~1453)	세종의 삼남
	육구소(陸九韶, 1128~1205)		성간(成侃, 1427~1456)	창녕, 유방선의 문인
	주희(朱熹, 1130~1200)		한치형(韓致亨, 1434~1502)	창주, 무오사화
	장식(張弼, 1133~1180)		정여창(鄭汝昌, 1450~1504)	하동, 김종직의 문인
	채원정(蔡元定, 1135~1198)		김굉필(金宏弼, 1454~1504)	현풍, 소학동자
	여조겸(呂祖謙, 1137~1181)		권별(權擧, 1478~1548)★	안동, 영남의 사림
	심환(沈煥, 1139~1191)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서울, 김종직의 학통을 계승
	이번(李燾, 1163~1232)		김정국(金正國, 1485~1541)	의성, 김굉필의 문인
	섭하손(葉賀孫, 1167~1237)		서경덕(徐敬德, 1489~1546)	송도, 주기론의 선구자로 평가
	진덕수(眞德秀, 1178~1235)		이언적(李彦迪, 1491~1553)	경주, 영남학과 성리설의 선구로 평가
	나대경(羅大經, 1196~1242)		성수침(成守琛, 1493~1564)	창녕, 조광조의 문인
	허형(許衡, 1209~1281)		이준경(李浚慶, 1499~1572)	광주, 이언경의 문인
	사방득(謝枋得, 1226~1289)의 처 이씨		이황(李滉, 1501~1570)★	안동, 주기론 주창. 영남학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
	문천상(文天祥, 1236~1282)		조식(曹植, 1501~1572)	창녕, 남명학파의 창시
	위응중(魏應仲, ?~?)		조목(趙穆, 1524~1606)★	예안, 이황의 문인
	요덕명(廖德明, ?~?)		이지남(李至男, 1529~1577)	황해도 연안, 효행
	요진경(廖晉卿, ?~?)		성혼(成渾, 1535~1598)★	창녕, 성수침의 아들로 이황을 사숙함
	왕백대(王伯大, ?~?)		이이(李珥, 1536~1584)	강릉. 이기론 주창. 기호학파의 창시

	송용지(宋容之,?~?)	김성일(金誠一,1538~1593)★	안동, 이황의 문인
	건안군부인 유씨(建安郡夫人游氏,?~?)	이덕홍(李德弘,1541~1596)★	영천, 이황의 문인
		유성룡(柳成龍,1542~1607)★	안동, 이황의 문인
元 (3)	곽전(郭全,?~?)	정구(鄭逯,1543~1620)★	청주, 이황과 조식의 문인
	오사달(吳思達,?~?)	조진(趙振,1543~1625)★	양주, 이황의 문인
	장운(張聞,?~?)	조헌(趙憲,1554~1592)★	김포, 이이, 성혼의 문인이 며 조광조와 이황을 사숙
明 (13)	송렴(宋濂,1310~1381)	이항복(李恒福,1556~1618)	경주, 『소학』의 유포에 힘씀
	설선(薛瑄,1392~1464)	장흥효(張興孝,1564~1633)★	안동, 김성일, 유성룡을 사사
	정신(程信,1417~1479)	허목(許穆,1595~1682)★	양천, 정구의 문인
	구준(丘濬,1421~1495)	정시한(丁時翰,1625~1707)★	서울, 이황의 도통을 계승
	오관(吳寬,1435~1504)	이현일(李玄逸,1627~1704)★	재령, 영남학파의 거두로 이황의 학통을 계승함
	정민정(程敏政,1445~1499)	유경시(柳敬時,1666~1737)★	안동, 이현일의 문인
	포강 정씨(浦江鄭氏,?~?)	이익(李瀾,1681~1763)	여주, 성호학파의 창시
	정제(鄭濟,?~?)	김성탁(金聖澤,1684~1747)★	안동, 이황의 도통을 계승
	정렴(鄭濂,?~?)	김낙행(金樂行,1708~1766)★	안동, 이재의 문인
	조묘발(趙卯發,?~?)의 처 옹씨	이상정(李象靖,1711~1781)★	안동, 영남학풍의 계승자로 평가
	주봉길(朱逢吉,?~?)	안정복(安鼎福,1712~1791)	경기도 광주, 이익의 문인
	진무열(陳茂烈,?~?)	남한조(南漢朝,1744~1810)★	상주, 유희문의 스승
	하인(夏寅,?~?)		
未詳 4	건안 섭공(建安葉公,?~?)	정영후(鄭榮後,?~?)의 처 한씨(?~?)와 시누이 정씨 (鄭榮邦,?~?)	지조
	군장(君章,?~?)		
	육덕원(陸德原(梳山),?~?)		
	원씨(袁氏,?)		
	총 채록 인물 수: 45인	총 채록 인물 수: 45인	

이로써 살펴보면 중국은 대부분 당, 송, 원, 명대의 시대로 주자를 중
심으로 그가 스승으로 여겼던 호헌 이하 程朱학설을 계승 발전시킨 인
물들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의 인용에 있어서도 주자의

어록이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많은데 이는 이 책을 만들게 된 배경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요소이다. 이는 본문 속에 주자가 채록된 빈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언 편에서 20회, 선행 편에서 6회로 모두 26여 차례 인용되었다. 가언 편에 비해 선행 편에 주자의 채록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각 조목의 의리에 적합한 행적을 인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채록된 중국 인물 가운데 『소학』에 인용된 동일 인물은 주자를 제외하면 여조겸, 진덕수, 허형 등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한 인용은 『소학총론』에 수록된 여조겸의 설이 유일하다. 그 외에 『소학』에 채록된 인물이 간혹 예시로 인용되기는 하였지만, 본문 전문은 물론이거니와 부분적으로 채록된 것도 없다. 이런 점은 『소학』에 채록된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여 재편성한 『하학지남』과 가장 변별되는 점으로, 이 책이 『소학』의 후편으로 이름 붙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소학서로서의 특별한 면모이다.

우리나라는 고려에서부터 유취문이 살았던 19세기 당대까지의 인물들이 두루 포진되어 있다. 특이한 사항은 유취문이 의도하였는지에 대한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의 제현과 동국의 제현들의 분포 비율이 각각 45인으로 대등하게 채록되었다는 점이다.⁴¹⁾ 그는 『소학장구』를 저술하면서 『소학집주총론』에 이황과 이상정의 소학설을 보태어 『장구총론』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자신의 학문 연원이 이 두 선생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그의 자부심의 발로로 볼 수 있지만, 조선에서의 『소학』 학문의 대체와 그 학문적 위상이 독립적으로 정립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구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편』의 이러한 체제 구성은 동국의 인물을 중국 유학의 계보를 계승하였던 인물들과 같은 선상에 두고 이들의 격언과 지행으로 새로운 조선 『소학』의 정본을 만들고자 한 또 하나의 결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41) 『후편』 편목 아래 인물의 사적이 본문과 연관 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순한 인용 사례는 제외하였다.

한국사에서 유학의 계보는 대체적으로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조광조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선사회에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이 이후로부터는 <사우문인록> 등을 통해 학문적 연원에 따라 학통과 도통,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그 관계들이 정리되었다. 특히 17세기 학자 박세채는 『東儒師友錄』에서 正學과 道學을 기준으로 인물을 취사 선택하면서 앞의 7인 외에 김안국, 이언적, 서경덕, 이황, 성혼, 정구 등을 포함하여 그에 따른 학문의 사승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⁴²⁾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제시된 표를 보면, 조선 유학사가 시작되었던 기원에서부터 학파 학맥의 연원이 되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특이한 점은 이황 이후로부터는 그의 문인에서부터 영남에서 퇴계의 학풍을 계승한 인물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 표시된 인물의 활동지역 및 사승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인물이 모두 20인으로 전체 인용 비율의 44%에 달한다. 이는 학파 학맥과 관계없이 본문의 취지에 따라 인용된 인물 수를 제하면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영남에서 퇴계의 학풍은 이황→김성일→장흥효→이현일→이재(李裁)→이상정→유장원 등으로 전승되었다.⁴³⁾

『후편』에 가장 빈도 높게 채록된 인물은 퇴계 이황으로 14회이다. 이는 주자를 이어서 가장 많은 빈도이다. 그리고 대산 이상정(6), 구사당 김낙행(5), 학봉 김성일(4) 등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어 율곡 이이(4), 성호 이익(4), 남명 조식(3) 등 각 학파의 거두였던 인물들과 정암 조광조를 비롯하여, 서애 유성룡(2), 한강 정구(2) 등이 그 다음으로 채

42)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권, 한국사상사학회, 2012, 269~272쪽.

43) 구만옥, 『好古窩 柳徽文(1773~1832)의 璿璣玉衡論-『滄浪答問』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9권, 한국사상사학회, 2011, 177쪽.

록되었다. 이 가운데 이상정을 비롯하여 그의 외조부이면서 스승이었던 김낙행의 채록 빈도수가 높은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학장구총론』에 유휘문은 퇴계와 대산의 설을 보태어 『소학』의 학문 규모를 총괄하였다. 유휘문은 이상정의 문인으로 집안의 어른이었던 유장원의 문하에서 가학을 전승받았다. 그리고 유장원의 사후에는 정종로, 남한조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퇴계학을 계승하였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는 유휘문이 자신의 학문적 연원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영남의 퇴계 학풍을 재건하였던 인물을 대단히 중시하여 이 책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물의 지칭에서도 확인된다.

『후편』에 채록된 동국 인물의 경우 지칭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명시되어있다. ① 선생으로 호칭하는 경우, ② 시호로 호칭하는 경우, ③ 호로 호칭하는 경우, ④ 이름이나 직위, 字로 호칭하는 경우이다. 이름이나 자의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지 않거나 직위가 없을 경우이다. 그리고 특정하여 이이를李文成公珥(→李文成公), 이익을 李星湖先生(→星湖李公)으로 부르는 것과는 달리 유휘문이 살았던 안동을 거점으로 한 활동하였던 지역의 학자들에게는 대개 모두 선생으로 칭하며 한결 같이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 유언집의 『대동소학』은 이 책과 좋은 비교가 될 수 있다. 『대동소학』은 퇴계를 비롯한 인물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이와 송시열에 대한 채록이 절반에 가까이 이르면서 그의 학문 정체성이 이 책을 통해 적시되어있다. 이는 소학서류의 특징에 있어 이 책을 노론의 소학서로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당위성이 되었다.⁴⁴⁾ 이에 건주어 『후편』은 우리나라 유학의 도통을 계승한 학자들의 중심으로 채록하면서 퇴계의 학문을 계승한 영남 특히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주요 학자의 언행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그의 학문의 근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이 책이 영남 퇴계학의 소학서로 특정될

44) 이정민, 앞의 논문, 183쪽.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 지역을 널리 선양한 인물의 언행으로 영남의 예속과 교화의 학풍으로 삼아 『소학』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영남 『소학』 연구자로서의 그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저술물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특별히 거론할 수 있는 인물로 안정복을 들 수 있다. 그 근원에는 남한조가 안정복의 문하에서 공부하다가 그의 사후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유취문이 그 문하에서 강독을 하였다. 안정복을 통해 채록된 내용은 ‘關異端論說’이다. 이는 안정복의 문하에서 학문을 전수 받은 남한조의 반서학적 기풍에 대한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채록이라는 점에서 당시 영남의 학문적 기풍을 이 책을 통해 진작시키고자 하였던 의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장에서 논의해 볼 것이다.

2) 소학서로서의 완결성 추구

조선후기 『소학』 해석에 있어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는 『소학』 속에 수록된 인물이나 사건이 본문의 의리에 맞는 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논의였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유취문은 『소학』의 가언, 선행 편에 채록된 인물이나 사건의 비평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혀 두었다.

물었다. “漢唐의 여러 현인이 정자와 주자의 공박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언행을 취하여 배우는 자의 표준으로 삼은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답하였다. “말 한마디와 행실 한 가지가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모두 배우는 자가 모범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진실로 여러 사람의 말과 행실의 아름다움을 모아서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터득한다면, 성현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할 걱정은 없다.”⁴⁵⁾

그의 自問은 외편은 한당 이래의 제가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인물의 출처와 사건이 유가의 도덕적 기준과 더러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음을 인식한 발언이다. 이에 대한 그의 自答은 채록된 인물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행실이 본문의 미덕을 드러내기에 합당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소학』에 채록된 그 의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자가 채록한 『소학』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일정한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⁴⁶⁾ 그에 따라 본문의 본지를 해석하는 주석에서 그의 일정한 소신으로 작용되었다.

이윽고 아우의 자식들이 재산을 나누어 따로 거처하기를 요구하니, 설포가 그만두게 할 수 없어 그 재산을 반으로 똑같이 나누었다. (중략) 밭과 집은 그 황폐하고 기울어진 것을 취하고서는 ‘내가 젊었을 때에 다 스리던 것이니,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며, 기물은 그 썩고 부서진 것을 취하고서는 ‘내가 평소에 쓰고 먹던 것이니, 몸과 입에 편안하다’고 하였다. 아우의 자식들이 자주 파산하여도 거둬 다시 구제하여 주었다.⁴⁷⁾

이는 『소학』 선행 편 제10조에 채록된 설포의 일화로, 설포가 부모에게 내침을 당하면서도 효를 다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자지친 장에 소속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그 내용을 이어서 설포가 아우의 자식들이 分財하기를 요구하자 아낌없이 주고서 매번 파산하여도 거둬 구제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형제간 分財의 선례로 종종 인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조목의 본문이 두 가지 의리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 각기 다른 장으로 이속할 것이 주장되었고, 안정복은 『하학지남』에 이 조

45) 유휘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378쪽.

46) 구만옥은 유휘문이 학문 태도가 학문에 있어 박학을 추구하면서도 수기치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자를 표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구만옥, 앞의 논문, 187쪽.)

47) 유휘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551쪽.

목을 둘로 쪼개어 <효경 장>과 <우애 장>으로 달리 편성하여 두었다.⁴⁸⁾ 그러나 유휘문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동자가 물었다. “왕상이 효도한 일은 부자에 넣고 그 아우 왕람의 일은 장유로 따로 넣었는데, 위에서 설포가 효도한 일과 그가 재산을 나누어 준 일은 함께 말하였으니, 두 가지 일이 다른 것은 어째서입니까?”

답하였다. “설포의 일은 효를 위주로 하였고, 재산을 나누어 준 한 가지 일은 별도의 조목으로 세우기에는 모자란다. 또 설포 형제 일을 비난한 것이어서 형제 조목에 나누어 넣어서는 안 된다.”⁴⁹⁾

이는 해당 본문의 내용 가운데 아우의 자식들이 매번 재산을 탕진하고서는 또 다시 거듭하여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는 작태는 형제의 의리를 드러내는 모범적인 사례로 삼기에 옳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가 『후편』에 인용한 곽전과 오사달의 사례는 설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해당 장의 미덕을 적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채록된 것이다.

① 원나라 곽전은 요양 사람이다. 계모 당고씨(唐古氏)를 지성으로 섬겼다. 계모가 네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어려서 곽전이 몸소 밭을 갈아 키웠다.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어서는 각자 分財하여 따로 살기를 요구하였다. 곽전이 그만두게 할 수 없어 밭과 집, 기물 중에 황폐하고 씩어서 부서진 것은 자신이 가졌다. 계모를 봉양하고 살면서 맛이 좋은 음식을 빠뜨리지 않았다.⁵⁰⁾

② 오사달은 형제가 여섯인데 일찍이 아버지의 명으로 각기 살았다. 오사달이 개평 주부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집에 돌아와 장사를 마치고서 종족을 모았다. 울면서 그 어머니에게 고하여 말하기

48) 박순남, 『성호학파의 소학서류 연구』, 2021, 96쪽.

49) 유휘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552쪽.

50) 柳徽文, 『小學後篇』. “元郭全, 遼陽人. 事繼母唐古氏甚孝. 繼母生四子, 皆幼, 全躬耕以養, 既長娶婦, 各求分財異居, 全不能止. 凡田廬器物, 自取荒廢朽敗者. 奉唐古氏以居, 甘旨無乏.”

를, “우리 형제가 떨어져 있는 지 십여 년입니다. 이제 파산한 자가 많으니 한 어머니의 소생으로서 차마 형제간으로 하여금 고락이 고르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곧 집안의 재물로 그 빚을 변상하고 다시 한 집에 모여 살았다. 수년이 지나지 않아 집 뒤의 느릅나무와 버드나무가 연리수가 되니, 사람들이 우애에 감응한 것이라 말하였다.⁵¹⁾

곽전과 오사달은 모두 원나라 사람으로 이 이야기는 『오률행실도』에도 수록되어있다. 특히 곽전의 일화는 설포가 행하였던 일과 거의 유사한 것이면서도 分財함에 있어 양보에 그 미덕이 중심이 되고, 또 다시 재산을 요구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오사달의 사례는 분가했던 형제들이 다시 화합하여 모여 사는 내용이니, 그 도리가 우애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로 볼 때 그가 『후편』을 구성함에 있어 채록된 인물이나 사건이 해당 본문의 미덕을 드러냄에 있어서 조금의 흠결도 없도록 엄정하게 조목들을 취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① 구사당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일찍이 세상에서 교유를 삼가지 않는 자를 살펴보니, 작게는 비방을 불러일으키고 크게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⁵²⁾

② 비해당[匪懈堂·안평대군]은 왕자로서 학문을 좋아하고 특히 시문을 잘하였으며, 서법이 매우 뛰어나서 천하제일이었다. 또 그림을 잘 그리고 거문고와 비파도 잘 탔다. 南湖에 담담정을 짓고 문사를 불러 모아 <十二景> 詩를 지었다. 당시 명유(名流)로 친분을 맺지 않은 이가 없었다. 성간이 이름이 있는 것을 듣고 사람을 시켜 초청하였다. 성간이 가서 뵈고 여러 시에 화답하여 시를 짓고서 후일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

51) 柳徽文, 『小學後篇』. “吳思達 兄弟六人, 嘗以父命析居. 思達爲平主簿, 父卒還家治葬畢, 會宗族. 泣告其母曰 吾兄弟別處, 十餘年矣. 今多破產, 以一母所生, 忍使兄弟苦樂不均耶. 卽以家財代償其逋, 更復其居. 不數年, 宅後榆柳爲之連理, 人以爲友義所感焉.”

52) 柳徽文, 『小學後篇』. “九思堂先生曰 嘗觀世之不愼交游者, 小則惹謗, 大則罹禍, 處斯世也, 所當深戒也. 余甚拙澁, 顧有清濁無失之意, 自今切宜念之.”

하였다. 대부인이 성간에게 이르기를 “왕자의 도리는 문을 닫고 손님을 물리치며 근신하여 다른 일이 없어야 한다. 어찌 사람을 모아 봉우를 삼을 이치가 있겠는가? 패망할 것이 분명하니 너는 사귀지 말라.” 하였다. 그 후 재삼 그를 불렀으나, 끝내 가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패사하였다. 사람들이 그 식전에 감복하였다.⁵³⁾

①은 김낙행이 擇交에 신중할 것을 경계한 말로 가언 편 봉우 장에 채록되어 있다. ②는 선행 편 봉우 장에 채록된 것으로 성간이 어머니의 선견지명으로 안평대군을 멀리한 덕에 목숨을 부지하였다는 내용이다. 안평대군은 여러 문인들과 교우하면서 당대 문단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수많은 文人과 才士가 그의 문하에 몰려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인제가 모여드는 것을 꺼려하였던 수양대군에 의해 계유정난(1453)이 일어났을 때 사사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와 교유하였던 인물들도 함께 변을 당하는 화를 초래하였다. 이런 이유인지 『용재총화』를 비롯하여 『연려실기술』, 『해동야언』 등에 안평대군을 ‘성품이 가볍고 허황한 편이었다.’ ‘무뢰잡업(無賴雜業)의 무리도 많이 왔다.’고 하여 가벼운 성품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귀었던 인물로 평가되었다.⁵⁴⁾ 위에 제시된 인용 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이는 가언 편 김낙행의 말을 실증하기 위한 조목으로서의 그 의의를 중시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는 본문의 본지와 어긋나는 불필요한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을 채록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소학』 가언 편 제 6조에 채록된 마원은 조카들에게 말을 삼갈 것을 훈계하면서 용백고와 두계량의 장, 단점으로 그 사례를 들었다. 유취문

53) 柳徽文, 『小學後篇』. “匪懈堂 以王子好學尤長詩文, 書法奇絕, 爲天下第一. 又善畫圖琴瑟之技. 臨南湖作淡淡亭, 招聚文士, 作十二景詩. 一時名流無不締交. 聞成侃名, 倅人邀之. 侃往謁, 賡賦諸詩, 期以後日再會. 大夫人謂侃曰 王子之道, 當閉門麾客, 謹慎無他, 豈有聚人作朋之理. 其敗可待, 汝勿與交. 其後再三招之, 竟不往. 未幾敗死, 人感服其藻鑑.”

54) 許筠, 『海東野言』. “性又浮誕…無賴雜業之人, 亦多歸之.”

은 이 조목 아래 여조검이 “마원이 자제를 가르칠 때 본디 남의 허물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리어 자신이 남의 허물을 말하였다. 그 후에 허물을 받았다는 비방이 바로 교지에서 쓴 글 때문이니, 그 자손이 화를 면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화를 받은 것이다.”고 한 말을 주석으로 두었다. 그러면서 “취향의 분별은 모름지기 이 글로 경계하여 준칙으로 삼음이 마땅하다.”⁵⁵⁾고 말을 보태두었다. 이러한 점은 가언 편이 가지는 의의에 적절치 못한 말인 까닭에 취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유취문이 해당 본문을 채록함에 있어서 안평대군의 평가를 삭제한 것은 가언, 선행 편에 넣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만을 엄정하게 취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후편』은 조선 소학서로서 조선의 실정과 상황에 맞도록 편성하면서 조선의 체계를 흔들었던 西學을 본문의 중요한 논의로 채택하여 두었다.

안순암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근세에 소위 천학에서 천주를 大父로 삼고 교사를 代父로 삼아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무릇 거짓 형상을 설치하여 제사하는 것은 모두 마귀가 와서 먹는다. 선조 중에 선한 자는 천당에 있으니 반드시 드시러 올 이치가 없고,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니, 비록 원하더라도 드시러 올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예를 거스르고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가소로운 것은 지금 이 학문을 하는 자들이 천주의 형상을 걸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니, 이 또한 하나의 거짓 형상이니 역시 일종의 마귀이다. 성호가 소위 ‘종종 기이한 일들이 마귀에게 덮어 씌인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소위 마귀가 변환하면 예측하기 어려우니 또한 가장하여 세상을 미혹하는 것은 이로써 백성을 우롱하는 것이니, 西士[서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어 높이 떠받들고 있으니, 어찌 가소롭지 않은가?”⁵⁶⁾

55) 유취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393쪽.

56) 柳徽文, 『小學後篇』. “安順庵先生曰 今世所謂天學, 以天主爲大父, 教師爲代父, 爲其言者曰 凡假像設祭, 皆魔鬼來食, 祖先之善者在天堂, 必無來享之理, 惡者墮地

이는 가언 편 부가지친 장 제 7조로 안정복의 『천학문답』 가운데 천주교를 전파하는 자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당함을 피력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본문에 채록된 것은 남한조의 영향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남한조는 영남 남인으로 안정복의 문하에서 배움을 청하면서 『천학문답』에 대해 『안순암천학혹문변의』를 저술하면서 서학의 논리를 강경하게 비판하였던 인물이다. 이후 그의 낙향은 영남학자들에게 서학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확산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⁵⁷⁾ 유휘문이 안정복의 서학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후편』에 채록한 것은 영남지방에서의 반서학적 기류의 직접적인 채록이면서, 무엇보다 이를 소학서에 넣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가언 편 독서 장에 남한조의 학설을 채록한 것으로 그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소학』에는 경신 편 말미에 독서법에 관해 13조목으로 두었는데, 『소학』과 『대학』, 四書의 공부 차서에서부터 학문에 있어 이단의 분변에 대한 것을 밝혀두었다. 『후편』에서는 이를 15조목으로 늘려 보강하였다.

『후편』 가언 편 독서 장의 마지막에 그는 『천학문답』에 대한 변론으로 남한조가 저술한 『안순암천학혹문변의』에서 서학과 불교에 대한 내용을 채록하여 실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재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서양의 학문과 불씨는 비슷하지만, 다만 불씨의 껍질을 얻었을 뿐 그 천박하고 비류한 것은 불씨가 이치에 가까운 듯하여 진리를 어지럽혔던 것만 못하다. 지금 세상에 고명한 선비들이 왕왕 그것에 미혹되고 빠지니 진실로 괴이하다.(중략)아, 중화가 무

獄, 雖欲來得乎. 悖禮毀教, 孰甚於此. 亦有可笑者, 今爲此學者, 揭天主而禮拜禱祈焉, 此亦假像則亦一魔鬼也. 星湖所謂其種種靈異, 安知不在魔鬼套中耶. 所謂魔鬼之變幻莫測, 亦有假爲而惑世者, 以愚下民, 而西士惑之而尊崇之, 豈不可笑乎哉.”

57) 조지형, 「안정복의 『천학문답』에 대한 비평과 반서학적 인식의 확산-손재 남한조의 『안순암천학혹문변의』, 『국학연구』 3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 362~366쪽.

너지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오히려 문명의 한 부분을 수호하고 있다. 학술이 비록 진흥되지는 않았으나, 선비들의 취향은 지금도 역시 변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근세 이래로 유현이 점차 멀어지고 풍속이 날로 투박해지니, 선비들 중에 부박하여 재기 있는 자들이 선유가 만든 법을 좇지 않고 각기 자신의 뜻이 편한 바를 따르고 있다. 기이한 것을 숭상하고 색다른 것을 좋아하는 논의가 바야흐로 세상을 휩쓸자, 夷狄의 사특하고 망령된 가르침이 그에 편승하여 들어와 오랑캐의 도로써 중하(中夏)를 변하게 하는 그 조짐이 이미 만들어졌으니, 어찌 애통하지 않으랴.⁵⁸⁾

이는 당시 유교의 질서를 위협하였던 서학을 이단의 학문으로 규정, 이를 철저히 학문적 토론으로 배제하고 유가적 학문 정통성을 수호하고자 하였던 남한조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유취문은 가언 편의 경신 아래 독서 장을 별도로 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그 의의를 강조하였다. 『소학동자문』을 살펴보면, “경신 한 편은 다만 곧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니, 함양은 반드시 시서예악의 문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편의 말미에 마침내 독서의 법을 말하여 확장시킨 것이니, 입교 편 안에 학문을 겸하여 말한 것과 상응하는 것이다.”⁵⁹⁾ 하고서 또 “독서의 귀착점은 도의 방법을 밝히고 이단을 물리침으로써 그 심술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⁶⁰⁾하여 주자가 가언 경신 편의 말미에 독서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둔 의의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므로 독서 장의 말미에 이 조목을 둔 것은 서학이 이단의 학문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런 그의 신념은 광입교에 비해 실입교의 비중을 높여 편성한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正道の 학문을 하기 위해 그가 중요한

58) 柳徽文, 『小學後篇』. “損齋先生曰 西國之學與佛氏大同, 而但得佛氏之糟粕, 其膚淺鄙陋, 不能如佛氏之近理亂真, 而今世高明之士, 往往爲其所迷溺, 誠可怪也.(中略)噫. 自中華淪陷, 我東尙保文明一區, 學術雖不振, 而士趨猶未變. 不幸近世以來, 儒賢寢遠, 風俗日渝, 士之浮薄有才氣者, 不遵先儒成法, 各循其意之所便. 尙奇好異之論, 方驚於世, 而夷狄邪妄之教, 乘之而入 用夷變夏, 其兆已成, 豈不痛哉.”

59) 유취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506쪽.

60) 유취문 지음·박순남 옮김, 앞의 책, 522쪽.

준거로 삼았던 것은 주자가 만든 『백록동규』를 이은 영남에서 교육의 강령으로 삼았던 內規이다. 그 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퇴계 선생께서 『이산원규』를 만들고서 배우는 자들에게 보이며 말씀하시기를 “제생들은 독서를 함에 사서오경으로 근본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로 문호로 삼으며, 국가에서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지켜서 온갖 선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도를 지금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어 모두 몸소 행하고 마음에 터득하며, 체를 밝히고 용에 맞게 하는 학문에 힘쓰도록 하라. 여러 <사자집>과 문장, 과거 공부도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⁶¹⁾

② 김제산 선생께서 『동몽학령』에 말씀하기를, “동자의 행실은 공손하고 부지런한데 힘쓰며, 경박하고 날람을 경계하며, 게으르고 나태함을 금해야 한다.”⁶²⁾

③ 대산선생의 서재에서의 학규에 “○첫째, 새벽에 일어나 씻고 머리 빗는다. ○둘째, 청소하고 정돈한다. ○셋째, 출입과 걸음걸이를 삼간다. ○넷째, 언행을 삼간다. ○다섯째, 교제를 신중히 한다. ○여섯째, 독서를 부지런히 한다. ○일곱째, 싸움을 하지 않는다. ○여덟째, 회초리를 사용한다.”⁶³⁾

①은 이황이 이산서원에서 교과와 과정 및 공부의 방법을 명시하여 만든 원규이며, ②는 김성탁이 동몽을 가르치기 위해 정한 학령이다. 그리고 ③은 이상정이 巖齋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만든 학규이다. 이렇

61) 柳徽文, 『小學後篇』. “退溪先生作伊山院規, 以示學者曰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62) 柳徽文, 『小學後篇』. “金霽山先生 童蒙學令曰 凡童子之行, 務恭勤, 戒輕俊, 禁傲惰.”

63) 柳徽文, 『小學後篇』. “大山先生 齋居學規, 一曰晨興盥櫛…, ○二曰灑掃涓潔…, ○三曰出入步趨…, ○四曰謹言行…, ○五曰慎交接…, ○六曰勤讀書…, ○七曰戒閑閑…, ○八曰用夏楚…”

게 만들어진 표준 규범은 수양의 실체로서 일상에서 갖추어야 할 생활의 준칙이자, 학문의 단계에서 지켜야 할 강령이 되었다.

조선에서 『소학』은 채록된 본문의 내용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언행의 표준서였으며, 수기치인을 이상으로 삼는 유가 정치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미덕을 존중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데 적절한 교재였다. 일정한 단위에서 정한 규율은 곧 그 사회나 지역의 기풍으로 자리 잡게 된다. 『후편』은 영남 『소학』의 입문서이자 교학 교재로 중요하게 활용될 소지가 있었고, 유휘문이 이 책에 영남 학풍의 기저였던 내규를 채록하여 둔 의도 역시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휘문이 『후편』을 만들면서 『소학』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고, 서학을 이단으로 논단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영남 학자들의 학문적 기풍을 채록한 것은 인간관계의 미덕을 함양하고 풍속을 진작시키는 교화의 교재로서 『소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5. 결론

유휘문의 『소학후편』은 그의 역작인 『소학장구』, 『소학동자문』이 완성되기 전에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은 『소학』의 외편 체계에 준하여 가언·선행 두 편만으로 편찬된 소학서류로, 『소학』 외편을 확장한 후속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편찬되었다. 특히 한국 사상사에서 특별히 영남 안동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퇴계학문을 계승하였던 인물들이 중요하게 인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이 책을 특정 지역의 소학서로 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에 본고는 『소학후편』을 영남 『소학』의 기풍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영남의 소학서로 이 책의 위상을 정립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소학후편』에 대한 연구는 현재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책의 편

제와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하여 그 전모를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편제 체재 및 내용 체계, 그리고 분속된 조목의 상관성, 채록된 인물이나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남 퇴계학의 소학서로서의 이 책의 특징적인 면모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첫째, 『소학후편』은 『소학』 외편의 후속 편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 아래 『소학』의 외편 체계를 준용하여 가언·선행 편 두 체제로 편성하여 주자를 표준으로 삼고, 근세에 근접한 중국, 동국 인물 순으로 본문을 구성하여 만든 책이다. 『소학』의 체례를 준용하여 가언 편에 88조목 192항목을 두고, 선행 편에 65조목 114항목을 두어 153조목 306항목으로 그 체례를 갖추었다. 편성된 조목을 볼 때, 『소학』과 두 가지 면에서 변별성을 가지고 편차되었다. 하나는 『소학』 편제 체례에서 다소 논란이 되었던 봉우 장을 새로이 보충하여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후기에 생산된 소학서류의 편제 체계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편목 구성체계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한 조치이다. 다른 하나는 가언 편 광경신에 분속된 조목을 다른 조목보다 비중을 늘여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퇴계가 『소학』과 『대학』을 관통하는 핵심을 ‘敬’에 둠으로써 영남 『소학』의 기조가 실천성을 중시한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18세기 이후 만들어진 소학서류의 일정한 경향성이 반영된 것이다.

둘째, 『후편』은 조선후기에 생산된 소학서류 가운데 주자가 만든 『소학』의 체계를 가장 잘 준용하여 만든 소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소학후편』의 본문 구성에 『소학』의 본문이 채록된 사례가 없으며, 인물이 인용되더라도 그 내용의 유사성은 없다. 이는 『소학후편』의 구성 체제와 흡사한 체계를 보이고 있는 『하학지남』과 변별되는 점이다. 특히 본문을 구성하면서 『소학』의 내편과 일정한 의미접속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여 구성한 편성에서 확인된다. 본문 장절의 의미경계가 국적, 시대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의미의 변곡점이 그가 『소학』 본문을 분절하여 세운 개념과 의미적 상관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뚜렷

해진다. 한편 『소학후편』은 『소학장구』보다 먼저 저술된 책이지만, 이 책의 편집체제 및 편집 방향이 『소학』 전체의 체제와 합일되도록 구상되었다는 점은 그의 『소학』 학문에 대한 일정한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소학후편』은 우리나라 유학의 도통을 계승한 학자들을 중점으로 채록하면서 퇴계의 학문을 계승한 영남 특히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주요 학자의 언행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소학후편』에 채록된 인물은 중국 인물 45인, 동국 인물 45인으로 동일한 비율로 인용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한 많이 차지한 인물은 주자로 총 26회에 걸쳐 인용되었다. 이 책이 주자를 표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되지만, 그 다음으로 빈도 높게 채록된 인물이 이황(14회), 이상정(6), 김낙행(5), 김성일(4)로 이어지는 것은 이 책이 만들어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채록은 이 책을 통해 이 지역을 널리 선양한 인물의 언행으로 영남의 예속과 교화의 학풍으로 삼아 『소학』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그의 의도가 담긴 소학서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이 된다.

넷째, 『소학후편』은 18세기 이후 간행된 소학서류로서는 유일하게 반서학적 논조를 본문에 채택하였다. 이러한 점은 서학을 이단으로 논단하여 학문적 기풍을 바로잡고자한 의도적 편성으로 교화의 교재로서 『소학』의 가치를 중요시 한 것이다. 이는 퇴계를 비롯한 영남 학자들이 만든 학규가 실업교에 중요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 『소학』 관련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인식하고, 본문의 본지에 적확하도록 인물과 사건을 취사 선택한 것은 새로운 조선 『소학』의 정본을 만들어 이 책으로 영남 지역의 언행의 표준서로 삼고자 하였던 그의 의도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소학서류에 채록된 인물, 특히 동현 인물의 인용빈도는 그 소학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채록된 내용은 저자의 『소

학』에 대한 기치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에 저술된 유휘문의 『소학후편』은 철저한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주자가 『소학』을 편찬한 본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영남 퇴계학파의 소학서로 조선후기 소학사에서 이 책의 위상을 정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학후편』은 18세기에 만들어진 『동헌학칙』과 인물 구성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서술의 방식에 있어서는 주자의 어록을 중요하게 내세운 『하학지남』의 체계와 同異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소학서 상호 간의 변별성 내지는 유사성, 그리고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이 책을 통해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과제로 기약한다.

참고문헌

1. 資料

- 朴世采, 『南溪外集』: 『한국문집총간』 a141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a108
柳徽文, 『好古窩集』: 『한국문집총간』 b112
_____, 『小學後篇』: 개인 소장본
鄭琢, 『藥圃集』: 『한국문집총간』 a039
許筠, 『海東野言』, 한국고전번역원, 1971.

2. 著書 및 論文類

-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권, 한국사상사학회, 2012, 263-306쪽.
구만옥, 「好古窩 柳徽文(1773~1832)의 璿璣玉衡論-『滄浪答問』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9권, 한국사상사학회, 2011, 173-212쪽.
박순남, 「好古窩 柳徽文의 『小學章句』에 대하여—『小學』 편장의 分章分節體系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4, 동양한문학회, 2012, 161-201쪽.
_____, 「『소학장구』의 주석 방식에 관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40, 동양한문학회, 2015, 75-114쪽.
_____, 「신후담의 소학차의 연구- 분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8집, 한국문학, 2018, 83-131쪽.
_____, 「『소학』의 한국적 변용-성호학과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집, 한국문학회, 2021, 69-103쪽.
_____, 「『소학』의 한국적 변용성호학과 소학서류에 내재된 인물 사건에 대한 의리 규명」, 『퇴계학논총』 37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21,

95-121쪽.

_____, 「조선후기 『소학』 해석의 시대적 추이에 따른 특징」, 『동양한문학연구』 제62집, 동양한문학회, 2022, 95-144쪽.

유휘문 지음·박순남 옮김, 『역주소학장구』, 서울: 민속원, 2021.

이상호, 「영남학파의 『소학』 중시가 가진 철학적 특징과 교육적 함의」, 『국학연구』 제1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1, 39-69쪽.

이정민, 「18세기 『소학』류 서적의 새로운 양상-『大東小學』과 『東賢學則』에 대한 검토」, 『한국문화』 71권,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177-217쪽.

조성애, 「순암 안정복의 하학론 -『하학지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권, 한국교육사학회, 2010, 195-220쪽.

조지형, 「안종복의 「천학문답」에 대한 비평과 반서학적 인식의 확산」, 『국학연구』 38, 한국 국학진흥원, 2019, 355-383쪽.

황봉덕, 「李德懋 『士小節』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Abstract>

The Ethos of Yeongnam Sohak-Study on Sohakhupyeon of Yu Hwi-moon

Bak, Soon-Nam*

Hogowa Yu Hwi-moon (1773-1832) were Confucian scholars who were active in Andong, the hometown of Toegye-hak. He was educated as a disciple of Yu Jang-won, Nam Han-jo, and Jeong Jong-ro. And he is a person who passed on learning through lectures to Yu Chi-Myeong, Nam Han-Ho, and Cho Seung-Soo. He had a very deep interest in Chinese classics and ceremonies. During his lifetime, immersed in nurturing juniors, he authored a vast authorship of 29 volumes and 15 books.

In particular, his interest in Sohak was different. The three books of Sohakjanggu, Sohakdongjamun, and Sohakhupyeon, are all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Sohakhak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hakhupyeon is a book that was completed when he was 29 years old (1801). As the book name suggests, it has the character of a sequel to Sohak, and is organized into two chapters, Gaeon and Seonhaeng, which are the oepyeons of Sohak.

The Gaeon chapter was divided into Gwangipgyo, Gwangmyeongryun and Gwanggyeongsin. The Seonhaeng chapter was divided into Silipgyo, Silmyungryun and Silgyeongsin. And all had 153 clauses.

The features of this book are as follows.

* Kyungsung University

First, Sohakhupyeon is a Sohakseolyu created by faithfully inheriting the intention and system of Zhu Xi's writing of Sohak.

Second, using the words of Zhu Xi as the main point of the text, Chinese figures after the Yuan Dynasty and Joseon figures after the Goryeo Dynasty who had exemplary conduct were selected and proved.

Third, Korean figures were composed of those who succeeded in the genealogy of Confucianism in Joseon, those who led the study of the Toegye School in Yeongnam, and the Geungi namin scholars including Lee Ik. This point implies that Sohakhupyeon has an important intention to make it an introductory book to Sohak in Yeongnam, which learns the exemplary language and behavior of the Yeongnam Toegye School and Geungi namin.

On the other hand, this book importantly cites Ahn Jung-bok and Nam Han-jo's critical views on Seohak. This has significance as the first Sohakseolyu to record anti-Seohak discussions in Yeongnam at the time.

Key Words: Yu Hwi-moon, Sohakhupyeon, Sohakjanggu,
Sohakdongjamun, An introductory guide to Yeongnam
Sohak, The ethos of Yeongnam Sohak, Gaeon and
Seonhaeng Books in Yeongnam

■ 논문접수 : 2022년 07월 15일

■ 심사완료 : 2022년 08월 15일

■ 게재확정 : 2022년 08월 22일